



(...10페이지에 이어)

역사상 가장 강력한 제국으로 성장했던 오스만튀르크 제국은 그러나 19세기 내내 내리막길을 걸었다. 치명적인 붕괴의 순간은 1914년 여름 1차 세계대전과 함께 찾아왔다. 유럽의 대(大)제국 전원이 참가했지만 오스만튀르크 입장에서는 참전할 이유가 없는 전쟁이었다. 참전할 형편도 못 됐다. 제국 각지에서는 불온한 민족주의 바람이 불었고, 경제는 낙후됐기 때문이었다. 오스만튀르크 입장에서는 무장 중립을 지키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승자 편에 붙어 국익을 극대화하는 것이 최선이였다. 그러나 당시 집권층은 독일과 손잡고 참전기로 했다. 러시아에 빼앗긴 영토를 되찾기 위해서였다. 잘못된 선택이었다.

어리석은 권력은 언제나 국가를 몰락으로, 백성을 수난으로 몰아넣는다. 오스만튀르크도 예외가 아니었다. 1915년 1월, 영국을 중심으로 한 연합군이 다르다넬스해협을 통과해 이스탄불을 점령할 계획이란 소식이 전해졌다. 작전의 입안자는 당시 영국 해군장관 윈스턴 처칠(Winston Churchill)이었다. 프랑스·영국군과 독일군이 서부전선에서 교착상태를 이루자 처칠은 이스탄불을 정복해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코자 했다. 처칠은

연합군이 이스탄불을 차지해 오스만튀르크 제국을 무력화할 수 있다면 여러 전략적 이점이 있다고 판단했다. 우선 남쪽으로부터 러시아를 공격하는 오스만튀르크를 제거하고, 흑해를 통해 러시아군에 군수품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연합군은 흑해로 흐르는 다뉴브강과 발칸반도를 통해 독일의 동맹인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의 배후를 공격할 수도 있다. 그렇게 된다면 러시아는 배후 걱정 없이 전군을 독일 전선에 투입할 수 있고, 독일은 홀로 양쪽 전선에서 힘겨운 전쟁을 벌여야 한다. 독일은 오래 버티지 못할 터였다. 상상력이 풍부하고 전략적 안목이 탁월한 처칠 정도 되는 인물만이 그려낼 수 있는 대전략이었다. 계획은 완벽했다. 무스타파 케말의 존재를 알지 못했다는 단 하나의 실수를 제외한다면.

**처칠과 아타튀르크의 전쟁**

케말은 오늘날 그리스의 테살로니카에서 태어났다. 근대 교육을 받았고, 육군사관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그는 능력과 열정, 애국심을 두루 갖춘 탁월한 군인이었다. 집권층은 강직한 성격의 케말을 꺼려했다. 다르다넬스해협이 공격당해 이스탄불이 함락될 지도 모를 절체절명의 위기

가 찾아오고 나서야 케말을 전선으로 파견했다.

국제적 안목이 뛰어났던 케말은 처음부터 독일과 손잡고 전쟁에 뛰어드는 것에 반대했다. 그러나 군인답게, 애국자답게, 나라의 부름에 응했다. 그런 그에게 배정된 건 오합지졸로 급조된 불품없는 미니 사단 하나였다. 무능한 권력의 치졸함이였다. 케말은 보란 듯이 단기간에 오합지졸을 군인으로 탈바꿈시켰다. 4월 25일 연합군의 대대적인 상륙작전이 전개되자 케말은 미니사단을 이끌고 최전선에서 맞서 싸웠다. 케말은 병사들에게 명령했다. "나는 너희에게 공격하라 명하지 않겠다. 죽어라. 우리가 죽어야 다른 병사들이 뒤를 이을 것이다." 이런 명령이 100년 이상 제대로 된 승리 한 번 해본 적 없는 비루한 군대에 가담기나 할까? 그러나 통했다. 비록 함께한 시간은 짧았지만 케말이 보여준 의지와 용기, 인품과 능력은 헛방아리 군인들에게 자신의 목숨을 내던질 정도로 강렬했던 것이다. 케말의 부대는 죽기로 싸워 가장 중요한 고지를 지켜냈다. 연합군의 상륙작전은 실패했다. 케말의 승리는 향후 계속된 전쟁의 흐름을 바꿨다. 오스만튀르크 제국의 집권층은 원치 않았지만, 독일군 수뇌부는 케말을 '전적으로 믿는다'

▲ 다르다넬스해협의 갈리폴리 반도에 위치한 차나칼레 순교자 기념비. 1차 세계대전에서 무스타파 케말의 활약으로 현재 터키가 해협을 관할하고 있다.

며 무려 여섯 개 사단과 함께 가장 중요한 전선의 방어를 맡겼다. 그는 말은 바의 무를 다했고, 연합군은 결국 철수했다. 양측 통틀어 무려 50만명의 사상자를 남긴 채, 처칠의 원대한 계획은 수포로 돌아갔다. 케말이 이겼고, 국민 영웅이 됐다.

전쟁은 1918년 말 연합군의 승리로 끝났다. 패배한 오스만튀르크 제국은 독일제국, 오스트리아-헝가리제국과 함께 해체됐다. 케말은 무너진 나라를 일으켜 터키 공화국을 세웠고, 전면적인 개혁을 통해 터키가 중동의 강국으로 비상(飛上)할 기틀을 마련했다. 그 모든 위대한 행보가 다르다넬스해협에서 시작됐다. 만약 케말이 지켜내지 못했다면 해협과 터키의 운명은 어찌됐을까?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국제정치의 비극 앞에서 약소국이 그토록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를 차지할 수는 없다. 오늘날 해협에 나부끼는 건 터키의 깃발이 아니었을 것이다. 100년 전 남의 일이 아니다. 미·중 분쟁의 시대에 전략적 요충지인 한반도에 사는 한국인 입장에서는 오싷한 일이다. 우리는 격화되는 분쟁의 틈바구니에서 태극기를 지켜낼 수 있을까?



[갈리폴리 전투 영화에 호주 아버지가 왜 등장할까] 갈리폴리 전투를 배경으로 한 영화도 여러 편이 있다. 최근에 인상 깊었던 건 '워터 디바이너(The Water Diviner, 2014년)'다. 유명 배우 러셀 크로가 감독에 주연까지 맡았다. 갈리폴리 전투로 세 아들을 모두 잃은 아버지가 아들들의 시신을 찾기 위해 고향인 오스트레일리아를 떠나 터키로 향하는 이야기다. 멜 깁슨이 주연한 갈리폴리(Gallipoli, 1981년)도 같은 전쟁을 다루고 있다. 두 영화의 공통점은 제작국이 오스트레일리아란 것과 두 배우가 오스트레일리아와 깊은 관계가 있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갈리폴리에 투입된 연합군의 핵심이 오스트레일리아와 뉴질랜드였기 때문이다. 두 나라는 각각 2만8000여 명과 7400여 명의 사상자를 냈다. 갈리폴리 반도에는 이들의 무덤과 추모비도 있다.



# 가 자 여 행 사



**캐나다 동북투어 및 미 동북투어 상품**

- 캐나다 동부 (Best) 4박 5일 : 매주 일, 월, 목요일 출발
- 캐나다 동부 & 미국 동부 8박 9일 : 매주 수요일 출발  
캐나다 동부 & 미국 동부 6박 7일 : 매주 목요일 출발
- PEI & 대서양 일주 8박 9일 : 매주 금요일 출발  
PEI & 대서양 일주 6박 7일 : 매주 토요일 출발

**유럽 투어 상품**

- 파노라마 서유럽 11박 12일 (BEST 상품)
- 핵시 서유럽 6박 7일
- 이태리 일주 7박 8일
- 동유럽, 발칸 유럽 12박 13일
- 동유럽 7박 8일
- 발칸 일주 11박 12일
- 스페인, 포르투갈, 모로코 11박 12일
- 터키 그리스 10박 11일
- 성지 순례 9박 10일 (이스라엘, 요르단)

**에어 캐나다, 대한항공 한국행 세일 !!!**

## 에어 캐나다 세일 대한항공 세일

**대/한/항/공**

**미서부 투어 상품**

- 요세미티, 샌프란시스코 4박 5일 : 매주 수, 목, 금 출발
- 그랜드 캐년 3박 4일 : 매주 월요일 출발
- 서부 4박 5일 (3대캐년) : 매주 일, 월요일 출발
- 서부 대륙 6박 7일 : 매주 월, 금요일 출발
- 서부 대륙 7박 8일 : 매주 일, 월, 금요일 출발
- 엘로스톤 3박 4일, 첫출발 5월 13일, 매주 월, 금요일 출발

비행기에 관한 모든 것

**크리스틴 / TEL**  
**403-454-8717, 403-455-1004**  
**E-MAIL: gajatravel@gmail.com**

“유럽 투어 출발일은 전화로 문의 부탁드립니다.”